

종교간 대화로 은둔의 삶, 공유하고 이해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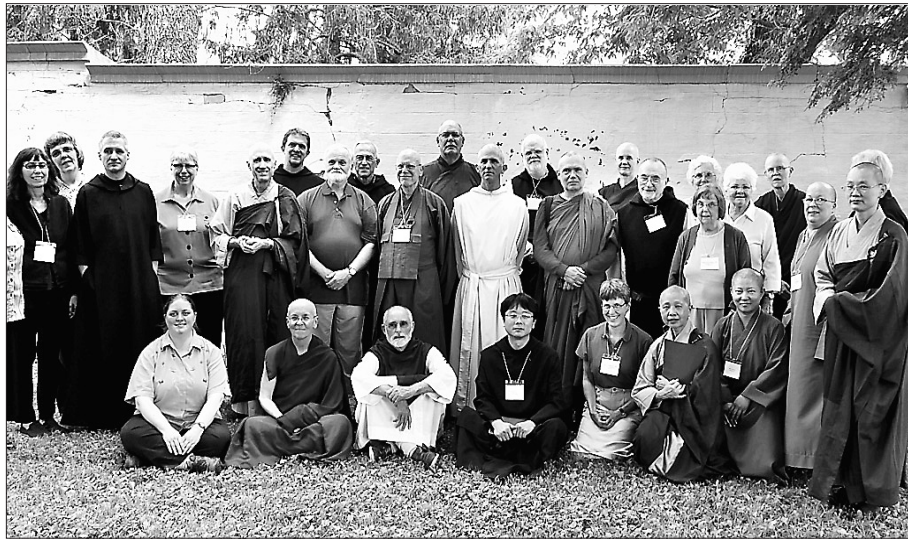
제4회 갯세마네 조우 열려... 불교·가톨릭 30여 명 참여

종교간 대화는 서로 다른 종교가 지향하는 삶과 믿음을 이해하면 그 문을 열 수 있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될 수 있다.

'SC Times' 지는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갯세마네 수도원에서 불교 수행자와 가톨릭 성직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4회 갯세마네 조우(Gethsemani Encounters)가 열렸다"며 "토머스 머튼(1915~1968)의 수도원으로 잘 알려진 갯세마네 수도원에서 1996년 처음 열린 '갯세마네 조우(Gethsemani Encounters)'는 서로 다른 종교, 불교와 가톨릭의 만남으로 수행자와 성직자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믿음을 이해하는 장"이라고 보도했다.

성 존스(St. John's)회와 성 베네딕토(St. Benedict)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갯세마네 조우'는 불교계와 가톨릭계 발제자들이 나서 발표를 하고 나면,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각각의 본교로 나눠 긴밀한 대화의 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진행했다.

'SC Times' 지는 "갯세마네 조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유로움"이라는 툐텐 초드론(Thubten Chodron) 스님의 말을 인용하고, "토론을 할 때에 식사를 할 때



미국 켄터키 갯세마네 수도원에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제4회 갯세마네 조우(Gethsemani Encounters)가 열렸다. 사원과 수도원에서 기도, 산책, 율력으로 이어지는 공동된 일상을 나누며 서로 다른 믿음의 사유를 바라보는 갯세마네 조우에는 30여 명의 스님, 신부, 수녀들이 참여했다.

각 종교계 인사 호평 '일색'

불교-가톨릭 믿음 이해하는 장 "종교 초월 대화로 사회평화 증진"

산책을 할 때도 항상 스님, 신부, 수녀의 모습이 함께 했다"며 "세상에는 각각각색의 생각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항상 그것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성 베네딕토 수도회의 헌정사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았다"며 이번 '갯세마네 조우'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툐텐 초드론(Thubten Chodron) 스님은 "종교를 초월한 대화의 노력은 사회적 평화를 증진할 수 있다"며 "갯세마네 조우는 서로 다른 종교에게 귀를 기울이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 이해를 넓히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Interfaith Dialogue)'의 '복미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피터슨(Michael, Peterson) 신부 27일 개회식에서 "가톨릭과 불교는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갯세마네 조우'는 서로의 동일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주목하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각각의 종교는 다르지만 수도원이나 사원에서 살아가는 삶이 매우 비슷하다"며 "이 자리에 모인 성직자와 수행자는 비록 서로 다른 신앙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만 오직 영적 삶을 따르며, 대중에게 헌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SC Times' 지에 따르면 28~29일 이틀간 진행된 토론회에서 베키 반 네스(Becky Van Ness) 수녀는 "가톨릭 영적 지도자를 위한 불교 지혜"를 주제로 발표했다.

네스 수녀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보다 많은 다리를 세워야 하고,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른 종교의 믿음의 실체를 바로 보고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스 수녀는 "내 신앙의 뿌리는 베네딕토 수도회의 가치에 두고 있지만, 그 믿음은 불교적 가치관과 공통점이 있다"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필수적 성직자나 수행자의 신심의 아이디어가 더욱 풍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C Times' 지는 "갯세마네 조우는 서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대화에 나설 때 그 다음이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이해의 폭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자리"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국 볼티모어의 불교 공동체가 '사회 정의'를 꿈꾸며 제6회 불교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4월 폭력폭동이 일어난 것에 주목, 불교 공동체가 그 교훈을 되새기고, 사회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볼티모어 불교 축제 "사회 정의 꿈꾸며"

불교 가치, 사회 갈등 풀자 자비 연민으로 집착 혐오 떨쳐야

미국에서 삶의 조건이 가장 열악한 도시 빈민가를 가지고 있는 볼티모어. 이곳에서 자비와 연민으로 빈민가를 품어 안고 새로운 도시를 꿈꾸는 불교 페스티벌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도시 볼티모어에서 '제6회 불교 페스티벌'이 열렸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사회 정의'를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허핑턴 포스트'는 "메릴랜드 불교계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워싱턴 DC 일대에서 제6회 불교 페스티벌을 개최했다"며 "불교 페스티벌은 대중법회, 토론회, 명상실습, 영화제, 음악제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볼티모어 불교 지도자들은 다문화, 다인종의 볼티모어 사회에서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6회를 맞은 불교 페스티벌은 어느 때와는 달리 '볼티모어의 교훈'을 주제로 한 토론회로 시작해 '마틴 루터 킹의 꿈'을 주제로 한 토론회로 끝났다.

오프닝 토론회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명사인 샤론 살즈버그(Sharon Salzberg), 성스러운 삶 재단(Holistic Life Foundations) 창립자 에드워드 모아워드(Edward Moawad)를 비롯해 볼티모어 불교명상 지도자들이 등이 참여해 '도시 공동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샤론 살즈버그 작가는 "베푸는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정신적인 길(명상)은 배움 안에서 표현되고 실현되고,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마음의 평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볼티모어에 팽배해 있는 집착과 혐오, 어리석음을 그냥 보내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또한 앤딩 토론회에는 교도 윌리엄(Kyodo William) 스님을 비롯해 명상 지도자 엘리너 헨콕(Eleanor Hancock), 페미 아킨나베(emi Akinagbe)와 베스트셀러 작가 타라 브래쉬(Tara Brach) 등이 참여해 '마틴 루터 킹의 꿈'을 주제로 '부

처님의 가르침이 볼티모어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불교 페스티벌의 산파 역할을 도맡았던 안드레스 곤잘레스(Andres Gonzales) 준비위원은 "현재 볼티모어에서는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이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페스티벌은 긴장감을 완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빈민가를 품어 안고 평화로운 볼티모어를 만드는 데 일조하길 희망했다"고 이번 불교 페스티벌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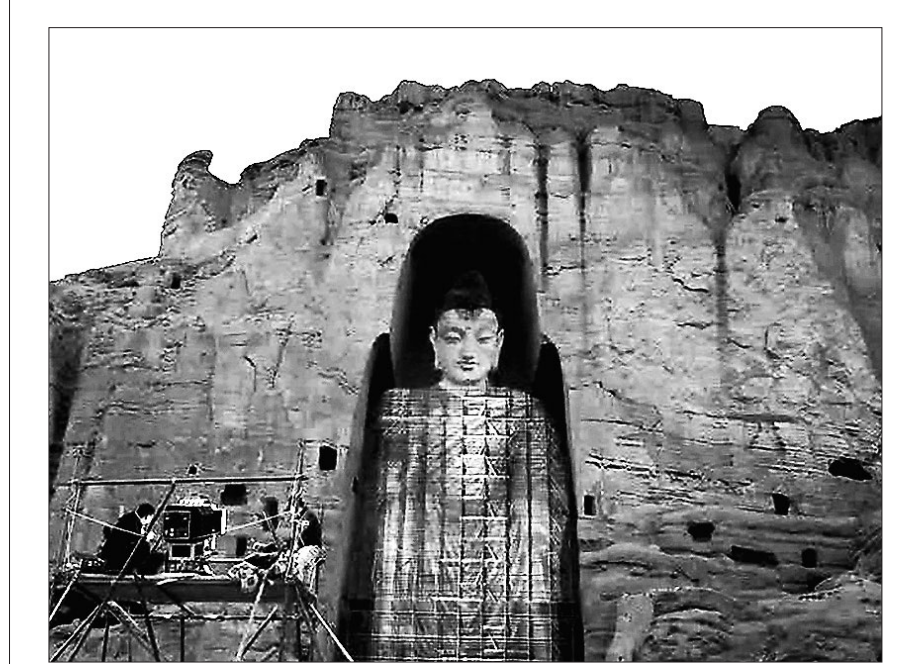
연방수사국(FBI), 인구통계국 등에 따르면 볼티모어 빈민가 지역은 메릴랜드 주에서 교도소 복역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실업률이 시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다. 중간 가계소득 역시 시 평균보다 1,500달러 이상 적고, 헤로인에 중독된 주민 비율도 미국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한마디로 지난 수십 년간 볼티모어가 미국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심각한 빈곤, 범죄,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허핑턴 포스트' 지에 따르면 볼티모어 불교 페스티벌은 지난 2010년 워싱턴 DC 대학에서 처음 열렸다.

당시 페스티벌 공동위원장 가브리엘 리에라(Gabriel Riera, 워싱턴 DC 대학) 교수는 "당시 영화제를 주축으로 한 페스티벌을 기획하며, 티베트 비구니 스님의 삶을 통해 연민과 자비가 혼탁한 세상을 정화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리에라 교수와 함께 공동 위원장을 역임한 에릭 포비스(Eric Forbis, 사회운동가)는 "볼티모어 불교 페스티벌은 불교가 사회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 괄목할만 하다"며 "올해로 6회를 맞은 불교 페스티벌 역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불교의 역할을 가능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볼티모어에서는 지난 4월 25일 25세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년인 프레디 그레이가 경찰 구금되었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대규모 흑인 폭동이 일어났다. 당시 볼티모어 시 당국은 폭력 사태로 34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해 234명이 체포됐고, 20명의 경찰관이 시위 진압과정에서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오종욱 편집위원



광학기술로 대불 형상 복원 '찰라의 나뭇'

14년 전 탈레반 반군에 의해 파괴된 바미안 대불이 이틀간 3D 광학 기술로 복원됐다. 'Haaretz' 지는 6월 14일 "중국인 부부가 광학 기술을 이용 6일, 7일 이틀간 원형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장신유(Zhang Xinyu) 씨와 그의 아내 리양홍(Liang Hong) 씨는 중국에서 준비해 온 바미안 대불의 고화질 슬라이더를 첨단 광학기에 투영해 6일 밤부터 7일 아침까지 8시간 동안 파괴되기 전 바미안 대불의 형상을 복원했다. 장신유 씨는 "이번 퍼포먼스가 세계인 기억에 남아 있는 바미안 대불을 더욱 분명히 해주길 희망한다"며 "매년 이런 퍼포먼스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팔순' 맞은 달라이라마 축하 물결

7월 5일 캘리포니아서 생일축하이벤트 열어

다가오는 7월 6일은 달라이라마의 80번째 생일이다. 이에 축하 앨범이 발매되는 등 전 세계 각계 인사들의 축하인사도 이어지고 있다.

평화예술재단(The Art of Foundation)은 7월 6일 달라이라마 생일에 맞춰 생일 노래콜렉션을 발매한다. 재단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달라이라마와 같은 공명 평화와 자비를 갖춘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달라이라마 생일을 널리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앨범에는 유명 영국 가수 스팅(Sting), 피터 가브리엘(Peter Gabriel), 케이트 부시(Kate Bush), 그룹 엘보우(Elbow)가 합세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민주당)은 "비폭력 사회, 인권, 종교자유, 환경보호, 민주주의를 위한 달라이라마 일생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달라이라마 가르침이 더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

한다"고 축하했다. 'Lion's Roar' 지는 6월 12일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생일 하루 전날인 7월 5일 캘리포니아주 옐로스톤 국립공원 에너하이밍에 위치한 혼다센터서 생일축하이벤트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달라이라마 생일을 앞두고 티베트 집단 거주지역서 단속 강화에 나섰다. 6월 1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 중국 간수성과 쓰촨성, 칭하이성 정부가 달라이라마 생일축하 행사 등 군중집회를 일절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인 정신적 지도로, 달라이라마 생일에 맞춰 중국 감압 통치에 반발하는 티베트인들의 항위 시위 발생을 우려한 것이다.

14대 달라이라마 탄진 가초는 1935년 티베트 아무르 지방 타크폴 마을서 태어났다. 1940년 14대 달라이라마로 공식 취임했으며 1989년 노벨평화상을, 1994년 루스벨트 자유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익기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동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문(39:25)	제8, 오색제자수기(21:11)	제15, 종지용출품(21:13)	제22, 촉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제9, 수해무학인기(11:22)	제16, 여래수상품(21:15)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24, 무음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건보살품(22:19)	제18, 수화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재바달다품(15:54)	제19, 반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봉경보살품(13:15)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안락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언론사